

# 국내 EPS 재활용률 60%로 상승

EPS재활용협회, 2003년 2만9336톤 기록 ... 전년대비 5.7%p 높아져

2003년 국내에서 사용된 발포스티렌(Expanded Poly Styrene)의 60% 가량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에 따르면, 2003년 스티로폼 포장재 발생량은 4만9529톤으로 이 가운데 59.2%인 2만9336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.

이에 따라 스티로폼 재활용률은 1994년 21%를 기록한 뒤 2001년 53.5%, 2003년 59.2%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.

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1996년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행 이후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2003년부터 도입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재활용률 증가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.

스티로폼은 재생수지나 욕실발판, 사진액자, 건축용 합성목재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5/04>